

원성원展

3. 7~4. 4

대안공간루프

글 | 김지연 · 가나아트센터 전시기획팀장

우리는 현실의 한 구석에 환상의 세계를 열어 놓고 산다. 인간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진동하는 존재라는 말처럼, 우리의 삶은 환상과 실재의 연속이다. '상상은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이 판별되지 않는 곳'이라는 들뢰즈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상과 현실은 결코 대립각이 아니며, 다만 모호한 경계 속에 놓여 있을 뿐 서로 상호작용한다. 컴퓨터와 미디어가 무섭게 발달하면서, 미디어에 의존해 현실을 파악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환상과 실재를 구분 짓는 일이 더욱더 만만치 않다.

환상은 이성의 힘을 의심하는 시대의 신화이다. 이성 너머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 통찰하고자 하는 바람, 합리적인 세계로부터의 도피를 위한 수단, 언어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소통방식이자 문화코드가 바로 환상이다. 그래서, 환상에는 현실을 전복하는 즐거운 일탈의 요소가 담겨 있다. 환상이 창조적 역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서와 통제를 위반하며 즐길 수 있는 유희, 그것이 바로 환상이다.

원성원의 작업에는 이런 환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작가가 만드는 가

상 현실의 출발점은 작가 주변의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재하지 않는 세계를 이미지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는 실재한 사건,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재하는 감정들, 관계들이 절묘하게 존재한다. 가상현실이라고는 해도, 그 안의 감정들은 실재인 것이다. 작가의 판타지는 이미지의 합성이라는 방법을 통해 아주 효과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합성으로 만들어지는 이미지라는 것이 이미 '실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작가의 이미지들은 아무리 그럴 듯하다고 해도 환상일 수밖에 없다.

두 조각가 보여주는 심리 전쟁을 여러 상징적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보여주는 <자매의 전쟁>이나, 오래 떨어져 살았던 가족 구성원 사이의 서먹한 감정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사과엄마와 빙어아빠 그리고 얼음딸> 등에서 작가는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 관계를 이미지화하는 탁월한 재능을 보여준다. 등장 인물들은 자신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자신을 상징화할 수 있는 사물들을 통해



각자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가상의 공간 속에서 등장 인물들 간의 심리적 경계심과 갈등, 해소 과정은 그들이 놓여 있는 물과 땅의 명료한 경계와 경계를 오가는 시선, 몸짓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내러티브가 매우 강한 이 두 작품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양스튜디오에 함께 입주했던 작가들이 스튜디오 공간에서 펼치고 싶었던 꿈을 가상적으로나마 실현시켜준 <오픈스튜디오>, 유기견들에게 그들이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준 <강아지 마을> 등은 바로 환상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합성을 통해 그럴 듯하게 시각화한다. 이런 작업들은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꿈의 세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일종의 쾌감과 대리만족을 주기도 한다.

<종로구 생백리 이야기>에서 작가의 환상은 극대화된다. 오늘의 광화문 한복판으로 들어온 과거의 생백리라는 공간과, 과거의 공간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의 시간으로 시계를 되돌려 수습해보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합성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의 환상을 보여준다. 작가의 환상은 현실에서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가상적으로나마 해소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치유로서의 환상은 그의 드로잉 작업들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꿈 이야기를 담은 드로잉 작업에서 작가는 이성 저편의 감성적 세계, 무의식을 호명한다. 이렇게 불려나온 작가의 환상 세계는 현실의 고통이나 모순을 치유하거나, 도피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원성원의 가상세계가 유쾌하고 건강한 느낌을 전해주는 이유이다.



위 · <Tomorrow-사과엄마와 빙어아빠 그리고 얼음딸> 라이트젯프린트 120×200cm 2008
아래 · <Tomorrow-종로구 생백리 이야기> 라이트젯프린트 120×200cm 2008